

제33회 양봉인의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경북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10월 1일~2일 개최-

금년으로 33해를 맞은 전국 양봉농가들의 큰 잔치인 '제33회 양봉인의날 행사'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 시민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행사는 2005 벌꿀축제를 겸한 행사로써 각종 양봉기구와 양봉산물 전시 및 판매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큰 볼거리를 자아냈다.

특히 야생양봉원과 고려양봉원의 벌집모형 전시탑은 양봉농가는 물론 지역 관광객으로부터 놀라움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했고, 본협회 양봉산물 전시부스에 있던 관찰용 소상에서 꿀벌을 직접 관찰하며 여왕벌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행사 전날부터 내리던 가을비에 땅이 질어 걱정하였던 진행요원의 시름은 열띤 양봉농가들의 호응에 기우였음이 입증되었고,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여기저기 양봉 기자재 전시 부스를 빼곡히 채워 양봉농가의 선진 기술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더욱이 2004년도 담양에서의 농림부장관 참석에 이어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상배 상주시 국회의원, 이인기 칠곡군 국회의원, 김근수 상주시장, 장향진 경찰서장, 김기한 상주시 의회의장, 이정백 도의회 부의장, 장미향 경상북도 의원, 박두필 도의회 의원, 김종준 의회 부의장과 의회 의원,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류성엽 경상북도 농정국장, 황창연 한국양봉학회 회장, 상주대 차용호 박사, 류강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장, 강석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과장, 엄성호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 조상균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본

협회 전기현·배경수 부회장과 기타 상주시 내빈 등 총 50여명의 내빈이 양봉농가들의 사진작을 위하여 먼길을 마다않고 참석하였으며 미처 참석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원과 농촌진흥청 손정수 청장께서 축전을 보내와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양봉인들의 큰 축제인 제33회 양봉인의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한성우 경남지회장, 윤성복 한국양봉농협 이사, 김정관 전북지회 사무국장, 조명래 상주시 분회장이 농림부장관 표창을 김종목 영덕군 분회장, 김수원 성주군 회원, 안영호 예천군 분회장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상주시 김시배 회원, 상주시 노성성 대의원, 상주시 김정호 회원이 상주시장 표창패를, 경북 상주시청 축산특작과 최영숙 과장, 충남도청 축산과 김홍빈 축산행정담당, 울산시 농업기술센터 서부상담소 김생안 소장,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이석용 인력육성계장이 본 협회 회장 감사패를, 부산 양산시분회 최해돈 회원, 전북 고창수 이관수 회원이 본협회 회장 표창패를 수상하여 전국 3,000여명의 양봉농가들에게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지는 행사로 평양예술단의 노래와 무용 등 공연을 관람하고, 본격적으로 양봉농가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꿀물마시기, 팔씨름, 훌라후프 돌리기, 박 터트리기 등 4개의 종목으로 개최되었으며, 꿀물마시기는 일반 관광객이 참여하는 순서도 있어 양봉농가와 상주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였다.

금번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은 강원도 지회가 차지했으며, 2등은 충청북도 지회, 3등은 경상북도 지회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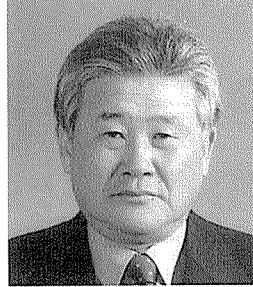
농림부 장관 표창 수상자



한성우 경상남도지회장



김정관 전북사무국장



윤성복 한국양봉농협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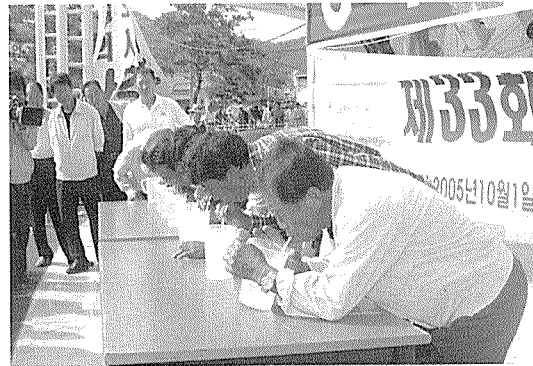
조명래 상주시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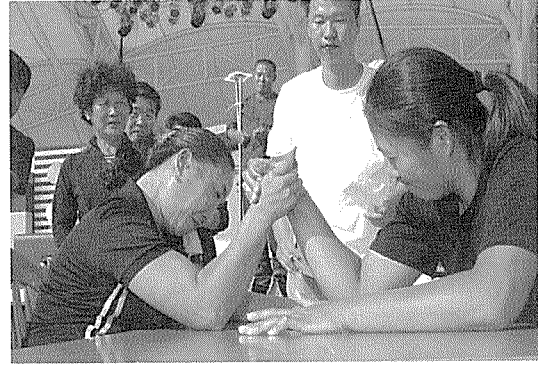
제33회 양봉인의 날 기념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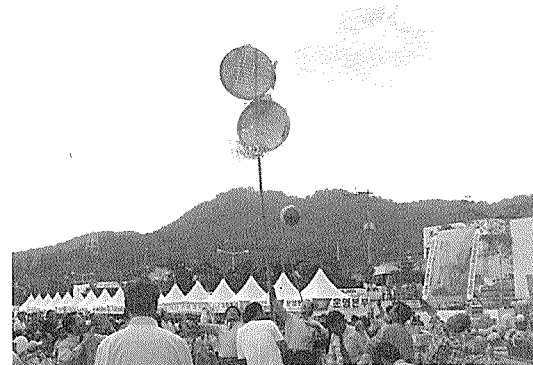
박해상 농림부차관보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양봉기구 전시장을 시찰하고 있다.



양종인 꿀물먹기 대회



여성 팔씨름 대회



박 터트리기 대회



종합우승 강원도지회와 기념촬영

“고품질 양봉산물의 생산과 이용” 에 관한 심포지엄 성료

오는 12월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다. 금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협정에 대한 세부 민감사항들이 거의 확정될 조짐이며, 이는 곧 범세계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양봉산물은 현재 아카시아 꿀을 제외한 나머지 산물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유로는 세계 학회에 입증할 자료 등을 규합하지 못한 것으로 한국양봉학회와 본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각종 심포지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양봉산물이 세계 그 어느 것보다 우수함을 알리고자 하였고, 금번 『2005 벌꿀축제 및 제33회 양봉인의 날』 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양봉인들이 모이는 계기로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고품질 양봉산물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황창연 한국양봉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해은 한국양봉협회장이 환영사를 함으로써 심포지엄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소비자를 생각하던 시민의 모임에 강광파 이사가 ‘양봉산물 이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능성 벌꿀의 생산과 이용의 주제로 방극승 동아대학교 교수가 ‘기능성 벌꿀 식품’을, 이명렬 농업과학기술원 박사가 ‘친환경 양봉을 위한 꿀벌 병해충 관리’, 오동환 순천대학교 교수가 ‘꿀의 기능화와 생산방법’에 대해 강연했고, 고품질 양봉산물의 생산과 관리의 주제로는 이만영 농업과학기술원 박사가 ‘고품질 꿀생산을 위한 여왕벌 양성 및 쌍왕군 관리’, 이승완 서울프로폴리스(주) 대표가 ‘국내 프로폴리스 시장 현황과 연구 동향’, 한상미 농업과학기술원 박사가 ‘봉독 생산 기술 및 활용’에 대해 강연했다.



상주시 시민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있다